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온 정부
	배포일시	2019. 8. 27(화) 총 2매(본문 2매)	
담당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담당자	· 과장 윤영중, 사무관 배성희, 주무관 강상진 · ☎ (044)201-3870, 3871
보도일시		2019년 8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27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...91억 원 규모 추경 투입 미세먼지 저감·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일석이조 효과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.
 - 금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시내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.
 - 이에 맞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*을 접목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.
 - *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차량가격의 차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:50(서울은 40:60)를 매칭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
- 이번 추경 91억 원은 200여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, 국토부는 올해 본예산으로도 친환경 저상버스 354대(전기 319대, 수소 35대)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.
 - 현재 시내버스용 전기버스는 모두 저상버스 모델로 출시되고 있고, 국토부가 '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%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친환경 저상버스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.
 - * '18년말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은 23.4%(전체 시내버스 34,287대 중 8,016대)

- 전기·수소버스 등 친환경 저상버스가 확대되면 미세먼지가 저감되어 국민들의 건강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높아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교통안전복지과 배성희 사무관(☎ 044-201-38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